

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
From Orbi.kr

1.지문 선별과정

	성추문 여부	전년도 출제 작가 여부	평가원출제	수능 출제	문학 교과서 1종이상 수록	문학 교과서 4종이상 수록
흑백사진-7월(정 일근)						
머슴 대길이(고은)						
초혼(김소월)						
만술 아비의 축문 (박목월)						
알 수 없어요(한용운)						
누룩(이성부)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신석정)						
휴전선(박봉우)						
춘설(정지용)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성애꽃(최두석)						
자야곡(이육사)						
고향길(신경림)						
완화삼 - 목 월 에 게 (조지훈)						
정장포 아리랑(곽재구)						
나그네(박목월)						
해(박두진)						
사월(김현승)						
견우의 노래(서정주)						
흥부 부부상(박재상)						
섬진강-겨울, 사랑의 편지(김용택)						
감자 먹는 사람들-삼짇 소리(정진규)						
그리움(이용악)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엄마의 발(김승희)						
빌려줄 몸 한 채 (김선우)						
새들도 세상을 뜬 는구나(황지우)						

고층 빌딩 유리담 이의 편지(김혜순)						
남신의주 유동 박 시봉방(백석)						
세한도(고재중)						

a) 표의 출처

1.정일근 - 흑백*7월사진

- 해냄

1. ~~고은~~ - ~~머슴 대걸어~~

2. 김소월 - 초혼

- 교학, 미래엔
- 2003 3월 학평 기출
- 2002 수능 선지에 출제

3. 박목월 - 만슬 아비의 축문

- 2007 7월 학평 기출
- 2012 3월 학평 기출

4. 한용운 - 알 수 없어요

- 비상,신사고,지학,창비,천재(김),천재(정)
- 2012 6월 평가원 기출
- 2003 6월 학평 기출

5. 이성부 - 누룩

6. 신석정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7. 박봉우 - 휴전선

- 지학

8. ~~정지용~~ - ~~춘설~~

9. 윤동주 - 쉽게 쓰여진 시

- 지학,천재(김),천재(고),해냄

10. 최두석 - 성에꽃

- 교학(운),교학(조),천재(고),천재(정)
- 2014 예비시행 B

11. ~~아육사~~ - ~~자아곡~~

12. 신경림 - 고향길

- 2006 6월 평가원

13. ~~조지훈~~ - ~~완화삼~~ - ~~목월에게~~

14. 객재구 - 전장포 아리랑

- 1) 해냄

15. 박목월 - 나그네

- 천재
- 2001년 수능 기출

16. 박두진 - 해

- 교학,비상,창비,천재(고),천재(정)

17. ~~김현승~~ - ~~사월~~

18. 서정주 - 건우의 노래

- 교학,지학
- 서정주 2018 3월 학평 출제

19. 박재삼 - 흥부 부부상

- 1) 교학

20. 김용택 - 섬진강15*겨울, 사랑의 편지

- 1) 신사고

21. 정진규 - 감자 먹는 사람들*삼짇소리

- 1) 천재

22. 이용악 - 그리움

- 1) 2003 수능 기출

23. 김승희 - ~~엄마의 발~~

- 2) 교과서 수록작가가 아님

24. 김선우 - 빌려줄 몸 한 채
25. 황지우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26. 김혜순 - 고층 빌딩 유리창뒤편의 편지
27.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 두산, 신사고, 지학, 천재
28. 고재중 - 세한도
1) 비상
29. 김광규 - ~~대장간의 유혹~~
30. 김춘수 -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1) 비상(유),비상(박),신사,지학

b) 선별

: 성추문으로 논란이 되었거나 2018 모의평가, 수능에 출제된 작가는 제외함
평가원출제&문학교과서 1종 이상 수록작품을 출제 1순위로 잡고 분석함
문학교과서 1종 이상에 수록되었거나, 개정이전에 기출된 작품이 출제 2순위임.

c) 결과

: 출제 1순위 - 성에꽃 / 나그네/ 알 수 없어요

2. 작품 분석

가. 성에꽃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가 금지된 친구여.

1. 천재(정) 문학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를 '경험의 가치를 파악하고 감탄과 연민이 나타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성에꽃'에서 감탄과 연민이 표

현된 부분 찾아보고, 주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2. 미래엔 문학교과서

작품 선정의 이유를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 인식에 이르는 체험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여, 성예꽃을 '심미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함.

다음
미적
고

문학의 심미적 인식 문학은 예술의 하나이며, 예술의 핵심은 아름다움, '미(美)'의 형상화에 있다. 이때 '미'는 작가의 창작을 통하여 구체화되지만, 이 아름다움의 세계는 독자의 마음속에 전이되어 독자에게도 새로운 미의식을 가지게 한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심미적 인식이라고 한다.

⇒ 문학의 심미적 인식 5

은 교과서에 '심
인식과 표현'이라
서술된 부분임.

심미적 경험 심미적 인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심미적 경험이라고 한다. 심미적 경험의 대상에는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기괴한 것, 추악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예술 작품과 관련될 때 더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심미적인 경험은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는 것으로, 일상과 예술, 현실과 이상, 진부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심미적 경험과 삶의 관계 10

심미적 인식과 표현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안목은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능력의 핵심이다. 심미적 인식은 대상을 아름다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비극적 아름다움, 희극적 재미, 대상의 숭고함이나 우아함이 환기하는 아름다움 등으로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다. 또한 그 대상의 특성과 심미적 인식에 걸맞은 표현들을 통해 그 아름다움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 작품을 수용할 때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작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도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성찰하고, 그에 걸맞은 구성과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심미적 인식과 표현의 의미 15

특히, 교과서에서는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예'를 '꽃'으로 명명하는 심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성예꽃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등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워 내는 생의 증표이자, 사람들의 정열의 숨결과 막막한 한숨으로 피워 낸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는 심미적 인식에 더하여 **‘민중과의 연대’**에 주목하고 있음.

‘개별적인 삶들이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중들 간의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서술하며 ‘어울림의 향연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심미적 인식에 더하고 있다’라고 후술하고 있음.

특히, 시어 **‘차창’의 외부세계와의 소통적 기능에 주목하여 ‘창에 서린 성예를 보며 민중들의 숨결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서술함.

3. 수능특강에서는

미래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차창’의 투영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 밖에 투영된 외부 세계의 삶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비판적 현실**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선지를 구성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에 더해 비판적 현실인식을 유도한다고 설명함.

또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성예를 심미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민중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선지를 구성하여 교과서의 심미적 인식을 이어받고, 심미적 인식에 더해 민중에 대한 긍정적 삶을 드러낸다고 추가하고 있음.

결론)

나. 나그네 -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출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1. **천재(김) 교과서**에서 박목월의 '나그네'는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실 이'와 같이 수록되어 있음. 다음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임

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노래하는 문학 갈래인 서정시에서, 시인의 정서는 주로 화자를 통해 직접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데 다음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시에서 시인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천재(김) 교과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지 않은 시의 특징에 주목하고 있음. 따라서 수능에 출제되었을 때 **정서의 간접적 표출**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될 수 있다.

2. **수능특강**에서 박목월의 나그네는 조지훈의 '완화삼-목월에게'와 같이 출제되었음.

특히, 시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에 주목하여 **"화자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여 나그네가 달관의 태도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라고 선지를 구성함.

이는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인 정서의 간접적 표출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3. 2001년 수능에서는 시어 '길'의 속성에 대해 물어봤는데

15.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종환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익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희 :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건다가 노을이 찾아오고, 술도 한 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 ④ 석현 :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삼백 리나 이어지는 게 어디 있어? 구름에 달이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 ⑤ 정인 : 그런 걸 상상이라 하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나그네가 걸어가는 고독한 길” 이라고 선지를 구성함.

다음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된 단독문제임
추후에 수능이나 모평에 출제가 됐을 때 개념이 확장될 여지가 있음.

다. 알 수 없어요 –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1. 창비 교과서에서는

창비 교과서는 크게 **a) 누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b) 마지막 행이 시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a에 대하여 교과서는 ‘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함

시 자체만 볼 때는 그리움의 대상(연인)이, 작가가 승려인 점을 고려하면 구도의 대상(부처, 절대적 진리)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시 일제 강점기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정신(조국)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독자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도 해석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화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과서는 서술함

의문형 문장의 반복과 산문적인 운율을 통해 자연의 신비와 ‘누구’를 연관 지으며 ‘누구’에 대한 깨달음·외경심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누구’에 대한 찬양을 경어체의 어조와 서정성이 드러나는 비유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누구’의 절대성과 신비함을 구도자의 자세로 그려낸다.

정리하자면, 평가원 시험에서 ‘알 수 없어요’가 출제된다면 누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될 수 있다.

b에 대하여 교과서는 마지막 행의 표현법과 시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음.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함.

‘알 수 없어요’의 시적 대상인 ‘누구’는 6행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낮의 밝음이 아니라 밤의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은 그가 고난을 겪는 상태, 달리 말하면 진리가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져 있음을 뜻한다. 이 작품에서 ‘임’이 있는(현존하는) 상황이 낮이라면 ‘임’이 없는 (부재하는) 상황은 ‘밤’이다. 마지막 시행에서 ‘나’의 가슴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것은 ‘임’이 부재하는 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화자는 자연 현상에서 떠올리는 임의 존재를 알 수 없지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도록 등불을 밝혀 임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밤(어둠)’과 대비되는 ‘등불’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밝혀 주는 존재로, 자신을 희생시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행의 표현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함.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화자의 내면에서는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모순을 보이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누구’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마지막 행의 시어 ‘밤’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며 등불을 통한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는 점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다.

참고)) 창작과 비평 교과서는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알 수 없어요’는 1920년대 우리 민족이 처한 어두운 현실에서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 준 시로 우리 문학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작품이다. 이 시는 시적 대상(‘누구’)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깨달음과 구도적 자세를 간절한 물음과 경어체, 역설적 인식을 통해 보여 주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시적 대상을 발견하고 표현하는지, 주제의 형상화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소단원의 제재로 선정하다. 또한 이 시에 나타난 ‘누구’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만해 한용운의 이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적 표현에 드러난 불교적 사상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이 소단원의 제재로 선정한다.

정리하자면, 1) 시적 대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 속에서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 하는지, 2) ‘누구’의 다양한 의미, 3) 불교적 사상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여 작품을 선정했다는 소리임.

또, 지도의 핵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알 수 없어요’는 의문형으로 끝나는 몇 개의 시행이 계속된 후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에 와서 시상의 전환을 보이다가 다시 의문형으로 끝을 맺는다. 즉, 1~5행은 각 행이 의문형으로 끝나고 6행에서는 평서문으로 전환하여 5행까지의 시상을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가 시적 대상에 보이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시적 대상(‘누구’)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시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